

## 무등산장 일대 음식점 '하산'시킨다

### '국립공원 생태 복원' 상업시설 22곳 이전...2017년까지 정비 추진

하루평균 2만7000여명이 찾는 국립공원 무등산. 광주도시에 두루 걸쳐있는 무등산은 광주시민과 매우 가까운 산이다. 특히 무등산장(원효사 집단시설지구)과 중심사 탐방로는 편리한 접근성,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때문에 인기 탐방로로 꼽힌다. 탐방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 등산 후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닭백숙, 파전, 도토리묵 등을 파는 음식점들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들어섰다.



오는 2017년까지 1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전 계획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오는 2014년 북한산 송주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무등산장' 일대를 정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무등산장 일대 상가주인과 토지소유자인 원효사측은 상가이전 계획을 반기고 있다.

무등산장 상업지구는 1980년에 식당 등이 들어선 이후 광주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호황을 누리기도 했으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등산로의 다양화 등에 따른 탐방객 감소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화된 상가 건물들이 무등산 오염과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현재 8곳 정도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집단시설지구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생존권을 주장하는 상인들의 반발이다. 환경부가 현재 국립공원 내 상가이전을 추진중인 오대산 소금강과 지리산 심원마을 이주 사업도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1999년 원효사지구 토지소유자인 원효사와 상인들이 상가이전과 정비를 협의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올해 안에 원효사 지구 정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주민(상인)들의 반대 여론이 없고, (이전) 협조가 잘 이뤄진다면 이르면 내년 부터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이르면 내년부터 무등산 아래로 이전하게 될 원효사집단지구내 상가단지. 1일 오후 점심시간이 지난 탓인지 한산한 모습이다. '토종닭 백숙'으로 이름난 이곳에는 14만3200㎡ 부지에 음식점 19곳과 상가 1곳, 휴게소 1곳, 여관 1곳 등 상업시설 22곳이 들어서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61년 광주일보와의 사연·자료 찾습니다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환갑의 해

호남 최대 부수를 발행하는 지역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올해 창사 61주년(4월 20일)으로 '회갑'을 맞습니다. 이에 광주일보는 독자 여러분과 본보의 소중한 사연, 소장중인 진귀한 자료를 찾습니다.

지난 1952년 창사 이후 본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를 포함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주일보에 실린 절절한 사연의 주인공은 물론, 그분들을 알고 계시면 연락주십시오. 또 본보와 관련된 소중한 자료도 찾습니다. 채택된 사연과 자료는 지면에 소개하며,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우)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  
무등빌딩 14층 광주일보 사회부  
◇전화=(062)220-0616  
FAX (062)222-4918  
휴대전화 010-3155-1111  
◇이메일  
unipark@kwangju.co.kr

## 유진룡 장관 "문화전당 콘텐츠 너무 막연"

### 9월 광주서 아시아 10개국 문화장관회의 개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전시·공연 등 프로그램) 계획안에 대해 "너무 막연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유진룡 장관은 1일 광주시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현장에서 진행된 언론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광주시 서구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유 장관은 "콘텐츠 초안은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에서 나

갈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추진단에 계획한 다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며 "아시아 문화전당이기에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아시아권 작가들이)문화전당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전당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1년 여 동안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마련한 콘텐츠 계획안에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교류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는 등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이어 "2일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 회의와 회의를 통해 콘텐츠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예산규모가 확정되고 운영예산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문화전당 전담운영 인력 구성과 관련, "올 안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문화전당을 운영할 기구의 모양, 인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체계로는 국립기관, 법인 등 모든 형태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아시아 각국 장관들과 문화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9월 10개국이 참가하는 한-아세안 장관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9억 이하 주택 연내 구입땐 5년간 양도세 면제

###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관련기사 9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 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건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 준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주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 2013년 4월 15일(월) 13:00

- 접수방법
  - 합평다이너스티CC 홈페이지(www.hpdynastycc.co.kr)
- 특 전
  - 가. 신페리오우승(1명)
    - 1년간 합평다이너스티 주중 그린피면제, 주말회원대우
  - 나. 메달리스트
    - 1년간 합평다이너스티 주중 그린피면제, 주말회원대우
  - 다. 신페리오준우승(1명)
    - 1년간 합평다이너스티 주중 회원대우, 주말회원대우

주 최 | 합평다이너스티CC  
주 관 | 61 광주일보  
진 행 | KPGA정회원  
후 원 | 전라남도, 합평군, 전남골프협회  
문의전화 | 061-320-7700, 320-7777